

추락방지 시설의 차별화 세종EHS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ldhfree@safety.or.kr)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근로자들이 일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춰놓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근로자들의 의식은 안전교육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안전시설의 경우는 비용 투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현장마다 큰 편차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안전시설 제작업체와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바로 인천 만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EHS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다.

현장 친화적인 제품

세종EHS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실족 방지용 벌판, 논슬립 고무패드, 저층작업대(우마), 알폼용 난간대, 톱니형 개구부 덮개, 철근 난간대, 거푸집 난간대, 써포트헤드 등 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들 제품들은 철저하게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제작된다. 그리고 제품의 세밀함도 타 제품과 차별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우마제품의 경우 높이조절 기능이 고정화되어 있는데 반해, 이곳 제품은 미세조정까지 가능하다. 난간대의 경우도 경사도에 맞게 수평, 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면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족방지용 벌판도 논슬립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한 층 높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인정신이 담겨져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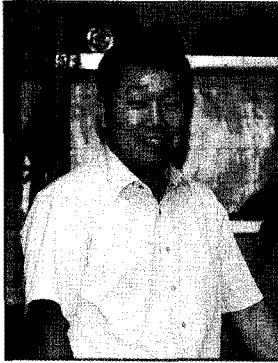
이들 제품들이 뛰어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곳의 CEO인 윤종철 대표가 남다른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윤 대표는 예전에 승풍기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현장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 했었다. 일하다 느낀 것이 바로 근로자들이 자기 몸을 너무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특히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러던 중 친한 동료가 추락사고로 칙추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직접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뒤 안전가설재 회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그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안전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현장의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국 건설현장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꾸준히 연구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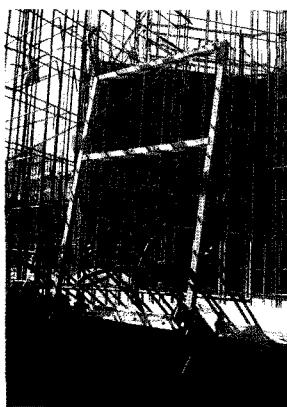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제품에 그대로 반영했다. 기계설비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였기에 현장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그대로 제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EHS 윤종철 대표

안전보호구와 장비, 모두가 안전의 필수품

흔히 근로자들은 안전하면 안전모와 안전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들 보호구 뿐만이 아닙니다. 주력방지시설 또는 안전시설들도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직업을 하는데도 꼭 필요한 보호장비입니다. 이런 인식을 현장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건설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화와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듯이 안전시설도 항상 갖춰놓고 직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호구와 장비, 이 모두가 나와 동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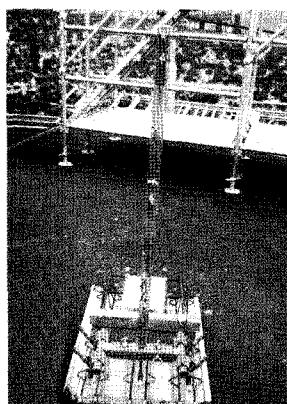


실제로 윤 대표는 회사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착상부터 도면설계, 셈플제작 등 제품의 생산 전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접 안전성을 체크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세종EHS의 제품에는 윤 대표의 진정한 '장인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선진국으로 진출 계획

윤종철 대표는 앞으로 안전선진국이라는 일본으로까지 진출하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것이다. 이 자부심은 바로 제품의 안전성과 직결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나라 안전시설의 우수성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세종EHS의 야심찬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주요 제품 BEST3

I. 실족방지용 발판

철근용과 데크판용이 있다. 철근용의 경우 철근이 격자방향으로 배근되어 있는 현장에서 이동 통로에 사용한다. 넓은 폴대가 길이방향으로 세팅되어 철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단목방향으로 진행 논슬립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데크판이 설치된 바닥은 가로방향으로만 철근이 배근되어 있어서 철근용을 사용하면 단목방향으로 꺽이고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다. 정목방향으로 가공두께를 5t로 가공하면 강도가 월등하게 증가하는데 데크판용 실족방지용 발판은 이를 감안해 제작됐다.

II. 알폼용 난간대

알루미늄 품의 계단 끝단에 난간대를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계단 단부형 난간대, 계단 경사면에서도 간단하지만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경사면용 난간대, 계단참과 알폼의 프로파일 난간대를 수직 및 경사지게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경사면 수직겸용 난간대 등이 있다. 또 E/V피트 입구 및 알폼의 끝단에서 알폼의 프로파일 수직, 수평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난간대도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III. 수직, 수평 철근난간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근난간대도 이곳의 주력 상품이다. 아이볼트를 풀고 클램프부위를 90도 회전하여 조립할 수 있으며 수직, 수평 부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